

“시민과 적극 소통...큰 목표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

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선6기 목포시장을 지내고 4년 만에 다시 민선8기 제41대 목포시장에 취임했다. 민선8기 시장의 큰 윤곽은 지난 4년 동안 목포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확립했다.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시장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 충만 관광문화 ▲시민 행복 맞춤형 복지 ▲인재 양성 미래 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등 경제·관광·복지·교육·소통 등 5개 분야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5대 시정방침을 정하고 목포시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의 도시, 매력적인 국제형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주요 공약

▲신재생 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지원부두 건설
▲해상풍력융복합산업과 플랫폼 구축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 유치
▲친환경선박 수리 조선 특화 산업 조성
▲스마트 선박 건조 수리 체계 구축
▲선박부품 연구 개발 및 물류 체인 인프라 구축
▲의과대학 유치
▲무안반도 통합 ▲해상케이블카 연계관광상품 개발
▲항만물류 확대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
▲시민 평생대학 운영
▲신도심 학교 신설
▲교육·문화 복합 시설 확충

박홍률이 걸어온 길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목포덕인고 교사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동행2본부 지방자치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국 절강재경대 금융대학원 겸직교수
▲조선대 법학과 특임교수
▲민선 6기 목포시장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전남도당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유능한 자치분권혁신 공동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증가 목표

박홍률 시장은 “최첨단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키워내 목포에 젊은 청년들이 터를 잡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20만명 규모의 청년 스마트산단을 조성으로 신생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해 청년이 찾아오는 젊고 큰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고효율의 스마트 그린 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인 스마트 벤처 밸리 조성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융합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육성, 맞춤형 청년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목포가 가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육성해 소상공인과 수산업 종사자가 마음 편히 일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해상풍력과 친환경 선박 산업은 물론 김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수산물박람회 개최해 상품개발부터 판매,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체류형 국제 해양관광도시 건설

박 시장은 항구도시 목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를 개통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관광 분야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발판으로 머무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신안·해남·영암·진도·무안 등 전남 서남권의 거점관광 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목포의 자랑인 해상케이블카는 2021, 2022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정도로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도 조성해 국제 해양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목포는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며 그 무대를 확장하고 있는 예향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예술인들이 행복한 목포,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민들이 넘쳐나는 도시로 문화예술의 저

강소기업 육성·4차산업 메카 목표

청년 스마트산단 조성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엑스포 개최로 위상 제고

시민 평생 대학 운영 등 동행 시정

우수인재 양성 교육인프라 조성도



변 확대에도 힘쓴다.

소중한 자산인 문화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새로운 목포의 경쟁력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역사와 지역 특성이 담긴 목포만의 문화예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엑스포’를 추진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의 위상을 높인다.

또한 울도와 외담도, 달리도에 유원지를 개발하고 펜션과 캠핑장, 해양 레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삼학도와 내항 간 해상보행교를 설치해 원도심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 예정이다.

근대문화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실질적인 내실을 더해 원도심의 역사성을 복원한다.

◇서남권 공동 발전 기반 마련

전남 서남권에는 전국 유인도서 약 42.6%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암 환자, 만성질환자 비율도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공공의료 체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의대 유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목포대 의과대학을 유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통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의 건강과 행복 도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치적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의대 유치 등 정치적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목포와 무안, 신안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무안반도가 서남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무안반도 통합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목포역 대개조 사업을 통해 목포역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3년에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시켜, 스포츠를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목포만의 특색이 담긴 스포츠 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스포츠마케팅 전담팀을 꾸려 ‘전지훈련=목포, 스포츠산업=목포’라는 인식을 조성해 젊음과 건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소통·복지 행정 강화

박 시장은 민선6기 재임 시절에도 늘 소통을 강조했다. 민선8기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시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더 활기 넘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소통·협력의 온라인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민 평생 대학을 운영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간다.

아울러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고,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양성해 교육도시로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세심하고 폭넓은 행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더 따뜻한 복지도시 목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리고, 젊은 세대가 아이 낳고 기르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고 공공 어린이 돌봄 센터를 설치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목포를 조성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펼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쓴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 수술비와 배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세심한 교통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조성

박 시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인프라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는 교육도시 목포를 그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교육 정책을 꼼꼼히 수립하고 세심하게 다듬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심에 학부모님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학교 신설을 이뤄내고 체협프로그램과 스마트 학습 등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또, 부주·옥암·용해 지역에 영어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옛 청호중학교와 같은 유휴공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시설과 주민 친화적인 유아 숲 체험장, 어린이 야와 문화체험시설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새로운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에 천명했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적에 구애받지 않고 정파를 초월해서 오직 목포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뒤로 하고 목포의 도약과 발전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열정과 웃음이 가득한 도시, 무한한 가능성으로 도약이 계속되는 도시! 민선 8기 4년이 이뤄낼 역사에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진정한 목포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박승경 기자

(왼쪽부터)

▶박홍률 시장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우려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박홍률 시장이 민선8기 취임 첫 일정으로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에 참여했다.

▶박홍률 시장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목포시 제공

